

내가 겪은 목회갈등 이야기

임 기 석(은퇴목사, 경북 청송)

인간이 사는 곳엔 그 어디를 가나 갈등이 있다. 가정엔 부부간의 갈등, 고부간의 갈등으로 가정 평화가 깨어지고 사회엔 세대간, 또는 노사간의 갈등으로 시위와 농성이 끊이지 않고 흑백 인종간의 갈등으로 폭동이 일어나고 기독교와 이슬람교와의 종교 갈등으로 중동지역에서는 폭탄테러가 빈번하여 세계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우리는 민족적으로 남북간의 갈등으로 오늘도 불안 속에서 살고 있다.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아 이야기는 주고받지만 천산이 가로막힌 듯 상대방의 속셈은 다르니 언제 진정한 화해의 시대가 오게 될는지 오리무중인 것 같아 가슴이 답답할 뿐이다.

교회는 어떤가? 교회 역시 천사들이 모인 곳이 아니고 사람이 모인 곳이기예 예외일 수는 없다. 교인 상호간, 당회와 제직회간, 교회와 교역자간의 갈등으로 사랑의 공동체가 깨어지고 황량한 사막 같이 되는 사례들을 우리는 보고 듣고 또 경험했다.

비신자들은 술 한잔으로 화해가 되는데 기독교인들은 좀처럼 풀 줄 모르니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속이 좁고 웅졸하다는 소리를 듣게 된다.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시시비비를 따지고 눈을 흘기고 코

를 실룩거리고 입을 삐죽거리며 꿀 보기 싫다고 고개를 돌려버린다.

그래서 교역자가 눈물을 흘리고 보따리를 싸게되고 교회는 깨어진 배와 같이 상처투성이 되고 주님의 가슴에 못박게 되는 것이다.

나는 근 40년 동안 대부분을 농촌에서 목회를 하는 가운데 이와 같은 사례들을 보고들을 뿐 아니라 나 자신이 수없이 겪기도 했는데 그 가운데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기로 한다.

1. 풍기 성내교회에서의 사례

1) 출신(남북)으로 인한 갈등문제

경북 풍기라는 곳은 소백산 끝자락에 위치한 소읍(小邑)으로써 일찍이 정감록을 신봉하는 평안도 분들이 십승지지(十勝之地)의 하나인 풍기를 피난처라 해서 8·15해방 전부터 많이 이주하여 왔고 그 후 6·25때 월남한 분들이 많아 거리에 나가면 평안도 사투리를 많이 들을 수 있었다. 평양냉면이 유명하여 멀리 안동에서도 여비를 써가면서 냉면을 먹으러 오기도 했다.

1962년도에 내가 부임했을 때도 장로들은 몽땅 남도 출신이었지만 집사는 북도 출신이 훨씬 많았다. 기질적(氣質的)으로 맞지 않은 점도 있었겠지만 남북 그리스도인 사이에 누적(累積)되어온 갈등이 표면화(表面化)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이곳에서 이런 갈등이 고착화된 것은 10년 동안 성내교회를 시무하면서 성전을 건축하고 피땀 흘려 헌신하신 북도 출신(대동군)인 이성찬 목사도 남도 출신 장로들이 배척하여 보냈다는 것 때문이었다.

그래서 남도 출신인 내가 갔을 때 북에서 온 교인들은 나를 별로 달갑게 여기지 않는 눈치가 역력했다. 부임 초기엔 교회가 또 다른 38선이 가로막힌 것 같았고 분위기는 썰렁하여 냉기류(冷氣流)가 감돌았다. “북도 출신 목사 보내고 남도 출신 목사가 와서 얼마나 잘하나 두고 보자. 우리는 팔짱끼고 강 건너 불 구경하듯 할 테니 너희들끼리 잘해봐라” 하는 것 같았다. 나 자신도 그런 분위기에 위

축되어 어깨가 축 쳐졌다. 사실 전임 목사이신 이 목사를 비롯한 역대 목사님들은 모두가 경력으로나 지명도(知名度)로 보나 유능하고 노련하신 기라성(綺羅星)같은 쟁쟁하신 분들인지라 목사 된지 겨우 2년밖에 안 된 목회초년생인 나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아닐 수 없었다. 설교를 잘하는가? 지도력이 탁월한가? 특별한 영력이 있는가? 아니면 수완이라도 뛰어났는가?

바보스러우리 만큼 고지식하여 위트(wit)나 유우머도 없고 제스처도 몰랐다. 정말 아무런 재능도 특기도 없으니 어떻게 갈등과 불화를 해소하고 화합을 이룰 것인가? 정말 걱정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인간적인 생각은 아무리 해도 대책이 없었다. 오랜 고민과 염려를 한동안 계속하다가 별 수 없이 내린 결론은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성서가 가르치는데로 하리라. 그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결론은 사랑이라고 생각되었다.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고 나 스스로 사랑의 사도가 되어 보리라 생각하고 기도를 시작했다.

“주여 나의 이 메마른 가슴속에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 했으니(고전 13:13) 150명 되는 교인 한사람 한사람을 내 가족처럼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 주고 가려운 곳을 긁어 주는 목사가 되리라 마음을 먹었다. 그리고는 비록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가시에 찢리더라도 한 마리 길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으로 이 골목 저 골목 심방하고 전도하고 부지런히 뛰어 다녔다.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공평하기로 작정하였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던가? 저희로 다 하나되게 하옵소서(요 17:22)라고 기도하셨고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라(갈 3:28-29 롬10:12). 다 같이 하나님의 권속이라(엡 2:14-19). 다 같은 그리스도의 지체라(고전 12:26-27) 하지 않았던가? 그리고 물고 먹으면 피차 망한다(갈 5:15)고 하지 않았던가?

흑인, 백인, 동양인 서양인 모든 인류가 다 한 형제라고 성경은 가르쳤는데 어찌하여 좁은 땅에서 남이나 북이니 동이니 서니 하는 것일까? 어찌하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바늘구멍보다 더 좁고 응졸할까? 지역 간의 감정대립, 차별의식이라는 이조시대부터 이어 내려오는 이 민족의 고질적인 병폐요 망국적인 근성을 교회까지도 버리지 못한다면 이 사회를 향하여 무슨 할 말이 있는가? 어찌 그리스도의 사랑을 외치며 화평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는가? 나는 526장 찬송가를 생각하면서 교회 화합이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주신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다.

1. 주 예수 안에 동서나 남북이 있으라
 온 세계 모든 민족이 다 형제 아닌가?
2. 주 예수 계신 곳마다 참사랑 사슬이
 못 백성 함께 묶어서 한 가족 이루네
3. 다같이 손을 맞잡고 한 아버지 밑에
 모양, 인종 다르나 한 형제 되도다
4. 주 예수 안에 동서와 남북이 합하여
 주 예수 사랑 안에서 다 하나 되도다.

나는 오히려 북에서 온 분들을 더 가까이 하고 따뜻하게 감싸주기로 했다. 왜? 그들은 실향민이라 나는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았다. 도랑만 건너도 고향생각이 난다는데 그들은 고향을 멀리 떠나 낮 설은 남쪽 땅에 와서 떠도는 집시(gypsy)와 같으니 얼마나 외로울까? 소외감을 느낄 때마다 얼마나 고향이 그리웠을까? 싶었다. 물론 처음엔 남도 장로들의 불만이 있었지만 인내하면서 똑같은 애정으로 설득하였고 북도 출신 장로도 한 분씩 세워 당회를 남북 출신이 같이 하는 당회로 만들어 나갔다.

하나님도 내 기도를 들으셨는지 한사람씩 나와 가까워지더니 급기야 교회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대립되던 사람끼리 갈등도 점점 희미해지고 교회차원에서의 왕래도 잦아지면서 교회가 서서히 하나가 되기 시작하였다. 대립과 반목의 검은 구름이 걷히는 것 같

아 너무 좋았고 무슨 큰 성공이나 한 것 같아 승전가라도 부르고 싶은 심정이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가 절로 나왔다.

2) 이웃교회 장로와 본 교회 장로 사이의 갈등

목사 위임식을 앞두고 난데없는 도발사태가 일어났다. 호사다마(好事多魔)란 옛말이 생각났다. A교회 Y장로가 가정불화로 그의 재취부인과 7개월 간 별거생활을 하게 되었다. 나는 A교회 당회장이어서 화해도 시키려 많은 노력을 했지만 두 사람의 관계가 너무도 악화되어 재결합의 희망이 보이지 않았다.

그러던 중 그 부인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중매자를 통하여 성내교회 독신으로 있는 K장로와 재혼을 하였다. K장로는 유일한 복도출신 장로인데 내가 부임 후 장립을 받으신 분이였다.

이 일이 있자 Y장로가 나를 찾아와서 “당회장이 이럴 수 있느냐?”고 항의를 하며 법에다가 고소하겠다고 10여 차례 협박을 했다. 워낙 찰거머리처럼 집요하게 달라붙어 물고 늘어지는 바람에 아내를 병까지 냈고 아직도 그때의 후유증이 남아 있다. 그러던 Y장로가 나중에 일부 후퇴하여 당사자인 K장로만 중징계(重懲戒)하면 고소를 그만 두겠다고 했다.

그러나 K장로는 무슨 잘못이 있는가? 무슨 죄로 징계를 받아야 하는가? 남의 부인을 유인해 온 것도 아니고 폭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지 않는가? 그런데 나중에 안 것이지만 한가지 문제되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Y장로가 별거한 지는 오래 되었지만 법적 이혼상태가 안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웃교회가 다 알고 시찰회까지 알게 되었으니 선불리 처리하면 교회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 분명했다. 그래서 나는 K장로를 설득시키기로 했다. 마침 전임 이성찬 목사께서 오셨고 둘이서 사태 수습을 위해 K장로를 찾아가 진지하게 설득하였다.

K장로는 참 신실한 인격자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때의 K장로의 결심이 쉽지 않았으리라 생각하면 분명 하나님께서 K장

로의 마음을 감동시켰음을 고백한다. 결국 K장로 자신이 교회 앞에 사과하고 징계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하고 나서 사태가 진정되는 것 같았다. 교회평화를 위해 K장로는 희생양이 되고 십자가를 지게 된 셈이다. 요나 선지가 “이 풍랑 나 때문이라”(요 1:12)고 한 것처럼 “나 때문이다”고 사과함으로 문제는 해결 된 것이다. 이것이 십자가 대속의 정신이 아니겠는가? 물론 교역자도 인간적인 정이나 자기교회에 대한 이기적인 생각을 앞세우지 말아야 함은 두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당사자나 교역자 또 교회가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회개하며 겸손하게 사태에 임할 때 모든 일은 해결됨을 확신한다. 시무장로인 K장로를 중징계한 후 해벌(解罰)도 되기 전에 어쩔 수 없이 예정대로 위임식을 하는 바람에 그 당시 마음이 많이 불편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2. 대구 팔달교회에서의 사례

이 교회는 도시 속의 농촌교회다. 내가 부임하기 전부터 두 여 집사간에 사소한 일(일일이 말할 수는 없지만)로 시비가 일어 법정애까지 서는 등 두 분의 사이는 최악이었다. 그 감정의 골이 얼마나 깊었던지 교회에서 마주치면 서로 보기 싫어 노골적으로 고개를 돌리고 앉으니 오월동주(吳越同舟)가 바로 이걸 두고 하는 말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 정말 힘들고 골치 아픈 사람은 교역자다. 어느 한 편이라도 치우쳐서 안되니 말이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두 사람의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 쉽사리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러던 중 신년도 서리집사 투표를 했는데 7집사가 득표미달로 탈락하게 되었다. 누구보다도 활동적이고 교회 일에도 앞장서서 봉사하던 집사인지라 7집사의 낙선은 자존심을 몹시 상하게 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었다.

그 다음 날 ㄱ집사는 내게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며 하소연하더니 나중에는 언성을 높이며 격한 말투로 자신을 낙선시키기 위하여 자기를 미워하는 모모 장로와 목사인 내가 모의하였다고 항의까지 하는 것이었다. 해명을 하고 설득을 하였지만 그의 오해는 좀처럼 풀리지 않았다. 이 일로 교회의 분위기는 냉랭해지고 나 자신도 너무 괴로워 어디론가 떠나고 싶을 정도였다.

시간이 지나면 좋아 질 것을 기대했지만 한번 상해버린 사람의 마음은 좀처럼 회복되기가 어려웠다. 나는 답답한 마음에 청천다락원(기도원)을 찾아가 3일간 기도하고 내려왔다. 혼자 수많은 생각을 했지만 뚜렷한 묘안이 없었지만 짧은 기도시간 중에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말씀하셨다. 백 번의 설득과 그 어떤 인간적인 방법도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대로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되었다. 침 뱉고 돌 던지던 군중들에게 원망은커녕 오히려 저들의 죄를 용서하셨던 주님을 생각하며 끝없는 사랑을 베풀 것을 다짐하며 다락원을 내려 왔다.

그 후에도 ㄱ집사의 마음은 좀처럼 풀어지지 않았다. 목사가 여러 번 가까이 다가가려 했지만 목사를 만나는 것조차 싫어하는 눈치였다. 하지만 이유가 어찌 했든 상한 심령을 위로 해주는 것이 목사의 일이고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기에 서두르지 않고 인내심을 가지고 접근하여 권면하고 위로도 했다.

다른 것은 아무 일도 할 수도 없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 버렸다. 그러기를 여러 날이 지났고 그렇게 완강하던 ㄱ집사의 태도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나를 더 이상 회피하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게 되었다. 다른 사람들에게 목사를 좋게 얘기하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내게 찾아와 금일봉을 내 놓았다. 양복을 한 벌 맞춰 드리고 싶다는 것이었다. 나는 고맙게 받았다. 그리고 반가웠다. 이제는 ㄱ집사의 심령이 완전히 치유되었구나. 주님 진정 당신은 치료자이십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오랜 후 그의 딸이 대학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으나 때마침 사업의 실패로 사정이 어려워 등록을 포기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그 일부를 도와 주었더니 그것이 너무 고마운지 그 뒤부터 지금까지 남달리 정을 쏟으며 지내고 있다.

그런데 그와 적대관계에 있던 ㄴ집사가 이것을 눈치챈 듯 나를 대하는 태도가 점점 거칠어졌다. 어느 날 꼭두새벽에 마을에서도 가장 고지대에 있는 자기 집 마당에서 온 동네 사람이 다 듣도록 큰소리로 입에 담지 못할 상스럽고 저속한 욕설을 나와 ㄱ집사에게 퍼부었다. 그의 입은 너무도 험구(險口)였다. 당장 쫓아가서 호통을 치고 싶었으나 시편 41:3절의 “하나님이여 내 입 앞에 파숫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말씀이 생각나서 그냥 입을 다물었다. 그 뿐만 아니라 나는 ㄱ집사에게 했던 것과 똑 같은 방법으로 대했다. ㄴ집사가 내게 어떻게 대하든 상관하지 않고 미소로 대했고 자주 찾아가서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며 권면하기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도 역시 상처받은 영혼이기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으셨다. 차차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ㄱ집사와의 관계도 호전되어 전과 같은 트러블(trouble)이 사라지게 되었다. 찬바람이 불던 교회에 상춘가절이 돌아온 것 같았다. 교회가 평안하니 내 마음도 평안해 졌다. 목회자의 기쁨과 보람이 여기에 있는 것 같았다.

이상 몇 가지 갈등사례를 들어 내 나름대로 해결 방안도 제시해 보았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깨달음은 교회는 인간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일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더더욱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모인 곳이라는 것이고 그곳에서의 모든 갈등과 다툼은 우리들 죄인들의 방법은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성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유일한 방법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무작정 주신 그 사랑을 우리도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랑이란 무한한 인내를 요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계속적이고 겸손한 기도와 간구가 뒷받침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결국은 합하여 선을 이루심을 체험 할 것이다.

이습우화에 나오는 태양과 바람 둘 중에 누가 길가는 나그네의 외투를 벗겼는가? 무지막지한 폭풍은 외투를 오히려 움켜쥐게 하지만 은근하고 집요한 태양 에너지야 말로 마침내 나그네의 외투를 벗길 수 있지 않을까? 정부의 햇볕정책도 아직은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 논란이 많지만 언젠가 반드시 그 성과가 있으리라 믿는다.

비록 외형적인 목회는 실패한 목사이지만 나의 햇볕목회(?)는 어느 정도 열매를 거두었다고 스스로 평가해 본다. 교회가 부흥하여 교인수가 많아지는 것도 목회의 한 보람이겠지만 이상에서 기술한 것처럼 얽히고 설킨 교인들의 갈등문제들이 풀리게 될 때 목회자는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비록 가난하고 왜소하지만 서로 화합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기를 즐겨하는 교회라면 그 이상 무엇을 바라겠는가? 화기애애하고 은혜의 분위기가 된다면 목사는 죽을 먹어도 행복할 뿐이다.

나는 위의 몇 가지 경우를 겪었을 때 인간적인 성취감(成就感)같은 것을 느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사례들은 비교적 결과가 좋은 것을 예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 할 수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실패하고 많은 상처로 남아 있는 사례들도 많이 있기에 돌이켜 보면 선배 목회자로서 참 부끄러울 뿐이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결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고전 15:10)”고 한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미련하고 보잘 것 없는 사람일 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님의 도우심임을 고백하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릴 뿐이다.

끝으로 보잘 것 없는 나의 이 체험이 장차 한국교회를 깊어지고 나갈 후배 목사님들이나 차세대(次世代) 목회지망생 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또 하나의 기쁨이고 보람이라 생각한다. 할렐루야!